New Leader Ⅸ.
하나님이 멀게 느껴진다면, 아마도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4:10-12] 10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11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1. 모세의 인생 정리 3줄

모세는 어떤 사람인가? 10절을 보라.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성경은 기록한다. 얼마나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가장 위대한 지도자로 모세를 말하는 일에 주저함이 없다. 신명기 34장을 마지막으로 모세는 지면에서 사라진다. 모세의 인생은 엄청나다.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사람의 레벨에서 이해할 수 없다. 하나님의 현현과 같다. 연약한 노인 모세를 호렙산에서 부르셔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그렇다면 성경은 모세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을까? 모세가 행한 많은 일 중에 무엇이 가장 위대한 일일까? 궁금해졌다.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 3문장의 요약으로 끝이 난다. - '대면하여 아시던 자, 행한 자'이다.
(10절 :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 12절 :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우리가 위인의 업적을 기억할 때 주로 그가 했던 사건이나 위대한 일을 기억하고 기록한다. 그런데 성경은 모세를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한다. '대면하여 아시던 자, 행한 자' 신명기 34장 모세의 인생 정리 3구절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나를 돌아보게 되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기억하시는 일이 너무나 분명해졌다.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 지금 나를 돌아보니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대부분이 사역을 감당하는 시간이다. 모세처럼 사명을 받아 열심히 사역하고 살아낸다.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의 인생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출애굽을 일으키는 것도 아니고, 훌륭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이끄는 것도 아니다. 물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가장 큰 축복은 모세처럼 '하나님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의 축복'과 '하나님의 말씀을 행한 자의 축복'이다. 모세가 받았던 가장 큰 축복의 두 기둥이 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기둥이다. 이것이 있어야 내 인생의 집이 무너지지 않는다.

2.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신명기 34:10, 새번역]
10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10 Since then, no prophet has risen in Israel like Moses, whom the LORD knew face to face,(NIV)

(1) 대면의 축복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은 대면의 축복이었다. 놀라운 축복이다. 하나님을 대면하는 축복이 왜 가장 중요한 축복일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할 수 있다는 것이 피조물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닐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한다는 것은 친밀한 관계에서 가능하다. 얼굴에는 이상한 비밀이 있다. 얼굴이 관계의 척도가 된다.

보고 싶다는 것은 '얼굴'이 생각나고, 얼굴이 그리운 것이다. 얼굴을 마주하고 싶은 마음이다. 연인들을 보라. 얼굴과 얼굴이 너무 밀착되어서 보기 민망하다. 가까이 있으면 다 보인다. 멀리 있을 때는 형상만 보였는데, 가까이 있으면 땀구멍 하나까지 다 보인다. 냄새도 맡을 수 있다. 반대로 보기 싫으면 '얼굴'이 보기 싫은 것이다. '꼴 보기 싫다'라는 표현이 있다. '꼴-사물의 생김새나 됨됨이'를 말한다. 아주 구체적이다. 얼굴도 보기 싫은 것이다.

[고린도전서 13:12]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 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창세기 33:10]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12절의 말씀이다. 사랑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이다.' 사랑의 마지막 결실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이다. 야곱과 에서의 회복의 증표가 야곱의 고백에서 나온다. '형님의 얼굴을 뵈온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그전까지 야곱과 에서는 원수와 같은 관계이다. 즉, 얼굴을 마주할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이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것은 어떤 관계인가? 가장 친밀한 관계이다. 부부 관계이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다. 모세와 하나님이 어떤 관계인지를 말해준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라. 얼굴을 마주 볼 수 있다는 것은 관계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다. 이와 같은 친밀한 관계가 아담과 하나님의 관계였다. 아담이 범죄 한 후 보인 가장 첫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의 얼굴을 가리는 것이었다. 왜 나무 뒤에 숨었을까? 아담이 말한다. 두려워서 숨었다는 것이다. 얼굴을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하나님이 변한 것일까? 아담이 변한 것일까? 하나님의 얼굴은 변함이 없다. 아담 안에 있는 죄가 결국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움의 얼굴로 만들었다. 왜 이것이 가장 큰 축복인지를 생각해 보자. 지면에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마주할 수 있었던 관계가 누구이겠는가? 시편을 보라. 시편 찬양의 하이라이트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다.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마주한 축복을 사모해야 한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다. 휘장이 찢어지고, 이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구원의 결과는 내가 원하는 어떤 소원성취가 아니다. 가장 큰 축복은 위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인자와 자비가 무궁하시며 신실하신, 사랑의 본체 되신 하나님을 다시 대면할 수 있는 축복이다**. 출애굽 한 구원받은 성도에게 있어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관계의 회복이다. 친밀감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친밀감'의 관계 이상, 이하도 아니다. 대면의 축복을 받은 존재가 나라는 사실을 알고 이 축복을 누리자. 선포하자.

(2) 안다 – 야다의 축복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 '야다'의 축복이 있어야 한다. 안다는 '야다'이다. 야다의 의미를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 수 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진리가 되는가? 히브리인들에게 '안다'는 것은 '경험한 것'을 말한다.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머리로, 지성으로 하나님을 알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대변되는 하나님은 그들이 직접 만났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다. 추상적 하나님이 아니다. 홍해와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 그들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중요하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역사이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역사'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건의 연속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지식이란 '**인격적인 관계의 만남에서 생겨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다.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지식이다. 인격적인 관계없이 얻어낸 지식은 '야다'의 개념이 아니다.

'야다'의 안다는 남녀가 서로 육체적 관계를 통해 아는 것을 말할 정도로 실재적이다. 인격적 관계없이 구경하여 관찰하는 지식이 아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이렇게 하나님을 실재적으로 알았던 사람이 있는가? 모세는 하나님을 '야다'하는 최고의 축복을 받았다. **야다는 '구별하다'**의 뜻도 있다. 우리 인생에서 유익한 것, 해로운 것을 구별할 수 있는 특권이다. 짐승과 사람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분별과 구별'이다. 구별할 수 없는 인생은 짐승과 같다. 구별과 분별의 능력만 있어도 가치 있는 삶이 되며, 행복한 삶이 되며, 낭비하지 않는 보람된 인생이 된다. 후회 없는 인생이 된다. (분별하지 못한 인생의 가장 큰 형벌은 '후회'이다. '그때 잘 판단했어야 하는데'라는 후회이다)

(3) 행하는 자의 축복

마지막 축복은, 말씀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의 축복을 받았다. 놀라운 말씀이다.

[신명기 34:11-12] 11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모든 이적과 기사와
12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매**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애굽'과 같다. 그곳에는 '바로'라는 엄청난 대적자가 버티고 있다. 하나님은 이곳으로 모세를 보내셨다.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과 바로에게 보내신 것은 출애굽이라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이다. 놀라운 사실은, 모세는 애굽 땅에서 바로 앞, 바로의 신하의 면전에서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을 행하게 하셨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고 기록된다. 주목할 말씀은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이다. 모세를 통해 이 땅에서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보이신 것이다. 놀라운 인생이다. 마른 막대기와 같은 모세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을 때 나타나는 놀라운 일이다. 이 일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축복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바로 앞으로 우리를 보낼 때 그냥 보내지 않으신다. 행하게 하신다. 그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 실재가 된다. **행함의 축복을 받아야 한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고 있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다. 오늘 내 삶에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행함이 없기 때문이다. 믿음으로 행하라.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

3. 말씀이 있다는 것

모세가 받았던 이 놀라운 축복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지 않고, 모세처럼 하나님을 대면하여 알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일까? 의외로 간단하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격적인 관계에서 읽고 묵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말씀대로 행하여 사는 것이다. 그 사람이 바로 모세처럼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사람이다.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는 이유는 하나이다. 하나님의 말씀과 멀리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라. 인격적인 관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신명기의 핵심은 '말씀'이다. 우리가 말씀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 성공의 말씀, 승리와 행복의 말씀이 있다는 사실이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아주 가까이 계신다. 이 관계를 회복하라. 그리고 축복을 받으라.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할렐루야.